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12월 13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 자 • 자치협력팀장 • 담당자	정 종 찬 ☎440-2491 노 승 희 ☎440-249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인천을 빛낸 영광의 주인공들 한자리에

- SSG랜더스, 손민수 인천적십자병원 내과 주임과장 등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회장 황규철)는 12월 12일 저녁 송도컨벤시아에서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인천을 빛낸 인천인을 선정해 '2022년 올해의 인천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자는 해리 김(Harry Kim) 전(前) 하와이 카운티 시장, 손민수 인천적십자병원 내과 주임과장,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 회장, 이승미 한국전통문화연구진흥원&한국전통문화뿌리연구소 대표 등 개인 4명과 (주)신세계야구단(SSG랜더스), 인천유나이티드프로축구단의 서포터즈인 '파랑검정' 등 2개 단체다.

2015년에 시작돼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올해의 인천인 대상'은 인천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시의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분야의 인천인을 발굴해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인천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인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개인 26명, 단체 10팀이 수상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후보자 추천과 신청 접수를 거쳐 개인 16명, 단체 4팀 등 총 20건의 후보를 접수했으며,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서면심의, 위원회 토론 등을 거쳐 수상자(개인 4, 단체 2)를 최종 선정했다.

유정복 시장은 “각 분야에서 묵묵히 열심히 활동하면서 인천을 빛내주고 계신 분들이 많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으며 무엇보다 인천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주어 감사하다” 면서 “앞으로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인천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붙임> 2022년 ‘올해의 인천인 대상’ 수상자 현황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수상자 현황 및 공적내용

구분	수상자	공적내용
개인 (4)	 해리 김	○ 한국인 이민 2세로서 인천에서 시작된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탄생한 미국 최초 한국계 시장으로 하와이 사회를 모범적으로 이끄는 등 한민족 공식 이민 120 주년을 맞이하여 하와이 이민 출발지였던 인천과 미주 한인사회의 자긍심을 높임
	 손민수	○ 인천 최초의 종합병원인 인천적십자병원에 2001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봉직하면서 인천 일반시민 및 의료취약계층의 진료를 통하여 인천 시민의 건강과 의료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2년 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전담의로서 활동한 공이 인정됨
	 이덕재	○ (사)인천상인연합회 제5·6대 회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발전에 공헌하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상인들을 대변해 국무총리 간담회, 중기부장관 간담회 등 많은 자리에서 상인들을 대변해 현재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한 공이 인정됨
	 이승미	○ 전통머리 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전통문화연구진흥원·한국전통문화뿌리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면서 학술대회, 전통문화 예술작품 공모전 및 국내외 전시회와 문화행사를 통해 한국전통문화 계승·발전·홍보에 앞장서는 문화예술활동가로서의 공이 인정됨
단체 (2)	(주)신세계야구단 (SSG랜더스)	○ 인천광역시 연고 프로야구단을 인수, 2021년 3월 20일 창단하면서 2 시즌 만에 한국야구 최초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달성하였고, 인천광역시 최초로 홈경기 방문객 1위를 달성하는 등 인천시 체육진흥과 시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
	파랑검정 (인천 유나이티드FC 서포터즈)	○ 약 3,600명의 인천시민들로 구성된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공식 서포터즈로서 2003년 구단 창간 이후 현재까지 구단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와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음. ○ 2022시즌 파이널라운드 원정 응원 프로젝트인 ‘비상원정대’ 참여 및 홍보, 10.1.(토) 울산전 홈경기에 ‘어린이, 청소년 초대를 위한 모금활동’ 등 응원으로 인천유나이티드가 K리그1 4위의 좋은 성적 및 경기력을 내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